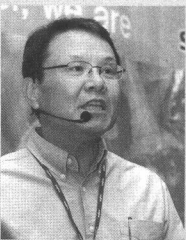


# 식량안보,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이스 보울지수는 한 나라의 식량안보의 상황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관리하는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지수이다.



김용환  
신젠타 동북아시아지역 솔루션 개발담당 사장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겸임교수

아시아에서의 식량안보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구기준 10대 국가 중 6개 국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영양실조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지만 경작지는 34%, 가용 수자원은 36%에 불과하다. 농업부문의 성장 저하,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문제해결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식량자급의 역량 확보에 큰 위협이다. 식량안보는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정치인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관련된 여러 복잡한 요인을 고려하면 농업분야만의 역할을 넘는다.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식량안보가 중요 의제로 논의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된 것도 좋은 한 예이다.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 문제는 에너지 자원 확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다. 삼성경제연구원이 작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급률을 3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표1) 국내소비가반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헛구호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농민신문 2012년 6월 11일)

식량안보의 복잡성과 그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종합적인 행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선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합의할 수는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는 '농업의 새로운 비전' (New Vision for Agriculture: NVA)이 있으며, 지난 5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

'농업의 새로운 비전'은 시장에 바탕을 둔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

표 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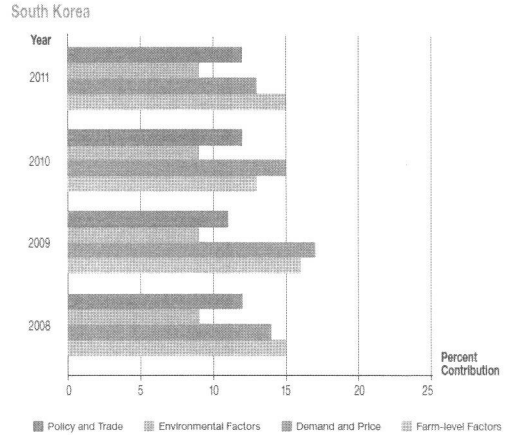
품 목	2010년	2015년(재설정)	2020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6.7	30	32
식량자급률(식용 곡물)	54.9	57	60
곡물자주율(해외곡물 포함)	27.1	55	65
주식자급률(쌀+밀+보리)	64.6(2008년)	70(보리 제외)	72(보리 제외)
칼로리자급률	50.1(2009년)	52	55
쌀	104.6	98	98
보리	27.8	31	31
밀	1.7	10	15
콩	31.7	36.3	40
서류	37.5	41.2	44.4
채소류	81.1	80	78
과실류	81.1	80	78
육류	72	71.4	72.1
우유 및 유제품	65.4	65	64
달걀	99.8	99	99

한 농업을 추구하며 이미 아프리카와 아세안 등의 국가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혁신적인 협력을 구축했으며 여러 국제 포럼을 통해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라이스 보울지수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 회의에 맞추어 발표된 식량안보의 역량을 진단하는 지표로 프론티어 스트래티지 그룹과 신젠타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라이스 보울지수는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를 단순히 문제점을 열거하는 것에서 떠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이스 보울지수는 한 나라의 식량안보의 상황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관리하는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지수이다. 여기에는 크게 1) 수요와 가격, 2) 환경요인, 3) 농가요인 그리고 4) 정책과 무역 등 4가지가 고려된다. 라이스 보울지수의 장점은 식량안보의 복잡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나 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표2).

표 2. 우리나라의 연도별 라이스 보울지수 변화



수요·가격분야와 농가분야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은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다. 식량안보라는 도전을 극복하려면 우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분야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라이스 보울지수와 같이 여러 영향 요인을 종합한 통찰력으로 어떻게 식량안보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진 시급한 도전과제이다.

식량안보라는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라이스 보울지수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의 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이스 보울지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ricebowlindex.com](http://www.ricebowlindex.co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㉔